

이야기 8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주제말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마태복음 27:26]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신 후, 다음 날 아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소.”
하지만 그들은 계속 소리치며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마침 그때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기적을 보기를 기대했어요.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헤롯과 그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마치 가짜 왕처럼 만든 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시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나에게 넘겨졌지만,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해 보니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였소. 그래서 그도 이 사람을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그를 채찍질한 뒤 풀어주겠소.”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끈 무리는 더 크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소. 이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마침내 빌라도는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어요.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암송해 보세요. (마태복음 27: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_____ 하고
_____ 에 _____ 박히게 넘겨 주니라

활동 1

다음 질문들을 읽고 답을 적어보세요.

1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신 후,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을 묶어 끌고 간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나요?

3 마태복음 27장 11-14 절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발했나요?

4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활동 2

예수님의 재판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설명을 읽고 아래 보기에서 이름을 찾아 써보세요.

1 그는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3 위험한 죄수(아마 살인자나 반란자)로, 무리가 예수님 대신 풀어주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4 그는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면서도 차분하고 존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5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며 외쳤습니다.

보기

예수님 - 헤롯 왕 -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
본디오 빌라도 - 사람들 - 바라바